

시베리아 아르잔-2호 주인공 모자의 사슴 문양장식의 조형 연구*

김 재 윤**

국문초록

스키타-시베리아 문화권의 동부에 속한 기원전 9세기 아르잔 1호의 동물 문양장식은 고리형맹수장식 외에도 사슴, 말, 염소 등 동물 문양장식 등이 출토되었으나, 관심의 대상은 맹수였다. 현재까지도 가장 이른 유적에서 나온 유물이며, 시베리아에서 확인되지 않다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아르잔-1호 발굴 30년 뒤에 기원전 7세기경의 아르잔-2호가 조사되면서, 다양한 황금유물과 함께 후대의 알타이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구조가 이미 이 시기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르잔-1호와 시기상 가장 가까운 아르잔-2호 유적의 무덤은 매장주체부가 지상과 지하인 점 등 상당히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본 고에서 아르잔-2호 남녀 주인공이 매장된 5호의 동물 문양장식을 분석한 결과 아르잔-1호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르잔-2호 주인공 모자에는 선 자세 사슴 문양, 말 문양이 장식되었다. 또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은 남성 검파두식, 검격에 장식되었다.

아르잔-2호와 5호묘 모자에 있는 선 자세의 사슴 문양장식은 아르잔-1호의 사슴돌 문양에서 확인된다. 모자의 말 장식과 남성 검의 장식인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도 아르잔-1호에 이미 존재했다. 특히 선 자세의 사슴 장식은 모자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데, 아르잔-2호 상징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과 함께 아르잔-1호로부터 이어진 것이라면 전통적인 문양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 아르잔-1호 선 자세의 사슴, 고리형 맹수, 말 문양장식은 시베리아와 몽골의 청동기시대 사슴돌 문화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노브고로드바가 분류한 II유형 사슴돌의 사슴 문양이다. 사실적인 II유형 선 자세의 사슴과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은 추상적인 13세기 I유형에서부터 변화되었다. 즉 초기 스키타이 문화의 가장 이른 아르잔-1호의 동물 문양장식 대부분 청동기시대 사슴돌에서 확인되었다.

[주제어] 스키타-시베리아 문화권, 선 자세 사슴 문양장식,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 청동기시대, 사슴돌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청동기시대 사슴 문양장식 |
| II. 연구 성과 및 목표 | V. 맺음말 |
| III. 아르잔-2호의 동물 문양장식 |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1046215)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 / jykim23@yu.ac.kr

I. 머리말

기원전 7세기 아르잔-2호는 스키타-시베리아 문화권의 동부지역인 시베리아 투바에 위치하며, 주인공 남녀의 무덤인 5호묘가 생생하게 확인되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문화권의 가장 이른 유적인 아르잔-1호와 불과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기원전 7세기 이 문화권의 동부지역에서 주로 황금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는 유적이 카자흐스탄에만 위치했는데, 투바에도 황금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유적으로 학술적 의미가 깊다. 뿐만 아니라 알타이 쿠르간이 발생하는 기원전 7세기에 이미 아르잔-2호라고 불리는 복합 의례장소에서 한 봉분 아래에 목실과 석관묘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알타이 해발 1,200m 이상에서 확인되는 파지리크 유적과 올란디르크 I 유적, 유스티드 XIII 유적에서 확인되는 요소이다. 즉, 알타이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 구조의 요소가 이미 기원전 7세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아르잔-2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¹⁾

그런데 아르잔-2호의 학사적 의미를 살펴면서, 다루지 못한 내용 중에는, 아르잔-2호의 동물 문양장식이 있다. 아르잔-2호 남녀 주인공의 모자에서 사슴과 말 문양장식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르잔-1호에서 확인되는 동물 문양이다. 이 유적이 발굴될 당시에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만이 스키타이 문화의 핵심요소로써 논의의 대상²⁾이 되었지만, 간두령 장식, 말 장식, 사슴돌 등 맹수를 제외하고도 동물 문양장식이 존재하며, 아르잔-2호의 모자 장식으로 연속된다. 또 사슴돌은 시베리아와 몽골의 청동기시대 판석묘 문화, 카라수크 문화 등에서 확인되는데, 아르잔-1호의 동물 문양장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IV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 선 자세의 사슴 문양장식은 이미 청동기시대 사슴돌 문양으로 사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르잔-2호의 주인공 남녀 모자 상단을 장식한 사슴 문양장식과 말 문양장식을 아르잔-1호와 비교하여 스키타이 동물 문양장식이 연속되는 점을 살필 것이다. 또한 스키타이 문화권 이전의 청동기시대 사슴돌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확인되어서, 동물 문양장식의 연속성이 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연구 성과 및 목표

스키타-시베리아 문화권의 동물 문양장식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은 근거가 되었고, 동물 문양장식의 특징으로 거대한 문화권을 동과 서로 양분하기도 한다.³⁾ 동물 문양장식은 무기와 마구 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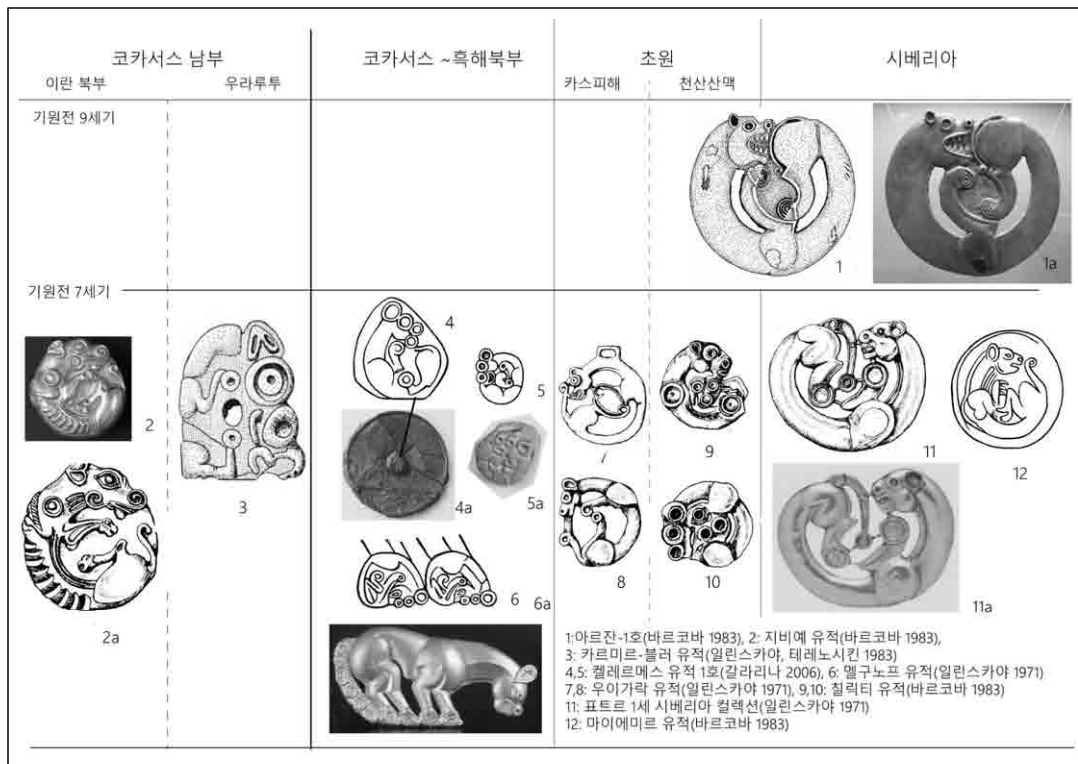
1) 김재윤, 『『스키타이 차르 무덤, 아르잔-2호』의 최신성과 및 학사적 의미』, 『고고광장』, 28, 2021b, 131~135쪽.

2) Грязнов М.П. Аржан.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ранне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Л.: 1980, pp.50~60.

3)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Язык звериных образов. Очерки искусства евразийских степей скифской эпохи*.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4, pp.89~98(페레보드치코바, 『언어로써의 동물문양장식』, 1994).

나라 의례용 유물에 장식되어서 기원 연구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 문화권의 가장 유명한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은 18세기 시베리아에서 수집된 표트르 대제의 컬렉션(그림 1-1)에도 포함되어 있다. 스피친에 의해서 명명된 이 컬렉션은 3가지 경로로 입수된 유물인데, 현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19세기 후반에 발굴된 켈레르메스 유적에서 앞서 말한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들과 비교되면서 시베리아 컬렉션 가운데 가장 이른 동물 문양장식으로 여겨진다.⁴⁾ 그래서 일찍이 이 유물은 스키타이 문화권의 황금 문화를 알리는 유물로 지목되었다.

고리형 맹수장식은 흑해 지역뿐만 아니라 카스피해와 천산산맥의 초원지역을 넘어 근동과 코카서스 남쪽에서도 출토되어서 분포범위가 매우 넓다(그림 1). 그런데 이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이 더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유적이 시베리아 투바의 아르잔-1호의 발굴로 알려지게 되면서,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이 이미 기원전 9세기에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게 되었다.⁵⁾



〈그림 1〉 스키타-시베리아 문화권의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김재윤, 2022b, 재인용)

4) 관련된 연구를 필자가 정리한 바 있다.

김재윤,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 수집지에 대한 검토 - 유라시아 스키타이 문화를 중심으로 -」, 『東洋學』, 87, 2022a, 4~7쪽.

5) Грязнов М.П. *Ibid.* 1953, pp.55~60; 김재윤,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라와 여신상: 교과서 밖의 역사』, 진인진, 2021a, 27~30쪽.

스키타이 동물 문양장식은 기존에 연구된 바와 같이 스키타이 3요소로 분리면서 스키타이 문화의 분포범위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특히 자세가 중요한 속성이다. 양식화된 동물의 중요속성들이 일정한 구성 원칙에 따라 결합된 것이다. 동물의 눈, 코, 입, 자세가 모두 개별 속성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⁶⁾ 특히 동물 문양장식의 자세는 금속제 장식판의 평면형태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⁷⁾

스키타이 동물 문양장식은 문화권의 동과 서를 구분하는 큰 기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스키타이 문화권의 서쪽인 흑해지역의 기원전 7세기 코스트롭스카야 유적 사슴 문양장식은 다리를 배 쪽으로 접어 넣은 자세이며, 사슴뿔이 몸통 끝까지 가지런하게 표현된 것이다. 동시대로 동쪽인 카자흐스탄 칠릭티 유적에서도 같은 모양의 사슴 문양장식이 확인되었다. 전자는 사슴 문양장식에 비해서 몸통이 훨씬 강하게 표현되었다. 신부와 뒷다리의 근육을 표현할 때 전자는 금속표면의 높낮이 차이가 큰 반면에 후자는 약하게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기원전 7세기 코카서스 북쪽의 켈레르메스 유적에서 출토된 투부를 감싼 금박에 이루어진 동물 문양장식은 고대 이란 계통으로 여겨진다. 동물의 몸통과 뒷다리를 구분하는 선을 2중으로 했는데 스키타이 문화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이고, 앓시리아의 동물 문양장식에서 관찰되기 때문이다.⁸⁾

또 동물 문양장식의 자세도 문화권의 동과 서를 크게 구분하는 특징으로 작용했다. 사슴 문양장식 중 하나인 수수께끼 모양의 '선 자세'는 험치 봄 유적, 타스몰라 유적 등 카자흐스탄 유적에서 확인되어서 이 문화권이 동부특징으로 동쪽지역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⁹⁾

그런데 최근에는 투바 지역에서도 기원전 7세기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아르잔-2호¹⁰⁾에서 선 자세의 사슴 문양장식이 확인되었다. 아르잔-2호의 주인공 무덤에서 사슴 문양장식을 포함한 동물 문양장식들이 확인되었다. 아르잔-2호의 남녀 주인공은 모자, 상의, 목걸이, 철검, 고리트 등에 동물 문양을 장식으로 사용했다. 뒤에서 분석하겠지만 특히 주인공의 모자 가장 상단에는 서 있는 사슴, 그 아래에는 말 문양장식, 철검의 장식으로 사용된 맹수 문양장식도 아르잔-1호에 이미 보이던 요소이다. 말 장식은 아르잔-1호에서 두부만 출토되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아르잔-2호에서 주인공 모자장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아르잔-1호와 아르잔-2호는 전고¹¹⁾에서 보았듯이 무덤의 구조가 전혀 다르다.

그러나 아르잔-1호의 사슴과 말 문양장식 등이 그 이후에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뒷세대가 문화적 속성을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르잔-2호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주인공 남녀가 착용했던 모자, 옷, 장신구(목걸이), 고리트, 철검의 동물 문양장식을 분석해서, 아르잔-2호에서 나타난 동물 문양장식을 아르잔-1호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6)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Ibid.* 1994, pp.28~30.

7) 김재운, 앞의 글, 2022a, 148~149쪽.

8) Артамонов М.И., *Сокровища скифских курганов в собр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рмитажа.*, Прага — Л.: «Аргия», «Советский художник». 1966, pp.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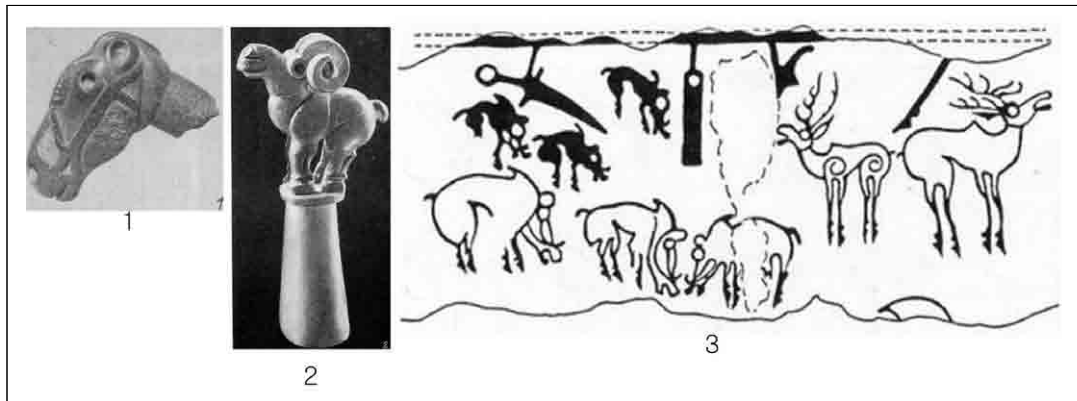
9)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Ibid.* 1994, pp.89~99.

10) 아르잔-2호의 자세한 무덤 구조는 이미 전고에서 소개한 바 있다. 김재운, 앞의 책, 2021a, 69~77쪽.

11) 김재운, 앞의 논문, 2021b, 140~141쪽.

그렇다면 아르잔-1호의 사슴돌 문양장식은 갑자기 생긴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시베리아에서 사슴 문양장식은 이미 스키타이 문화가 나타나기 이전 청동기시대 암각화 및 사슴돌에서 사슴 문양을 볼 수 있다. 셰르¹²⁾는 아르잔-1호의 사슴돌에 새겨진 사슴 문양을 청동기시대 암각화에서 찾았고, 볼코프¹³⁾와 아르타모노프¹⁴⁾도 청동기시대 사슴돌의 전통이 스키타이 시대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큰 이견은 없다.¹⁵⁾



〈그림 2〉 아르잔-1호 출토 동물문양(그라즈노프, 1980, 필자 재편집)

그래서 시베리아 청동기시대 사슴돌 문양이 철기시대 스키타이 문화권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사슴돌 분류는 노브고르도바의 안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이 분류안은 몽골 대표연구자인 Ts. 투르바트도 각 유형(몽골-남바이칼 유형, 사얀-알타이 유형, 유라시아 유형)의 명칭을 바꾸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기본적으로 분류체계는 같다.¹⁶⁾ 사슴돌에는 상, 중, 하단으로 구분되어 문양이 새겨진다. 그중에서 사슴 문양은 중앙에 새겨지고, 하단에는 무기가 그려진다. IV장에서 검토하겠으나, 크게 이른 유형(I 유형)과 늦은 유형(II 유형, III 유형)이 있고, 사슴 문양에는 변화가 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자세의 사슴,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 등도 발견되고 있다.¹⁷⁾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르잔-2호의 주인공 남녀 주인공의 모자 상단에 사용된 사슴 문양장식이 기원전 9세기 및 그보다 이전 청동기시대부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서 스키타이 문화의 전통 지속성을 살피고자 한다.

12) Шер Я.А. *Петроглифы Средне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 1980, p.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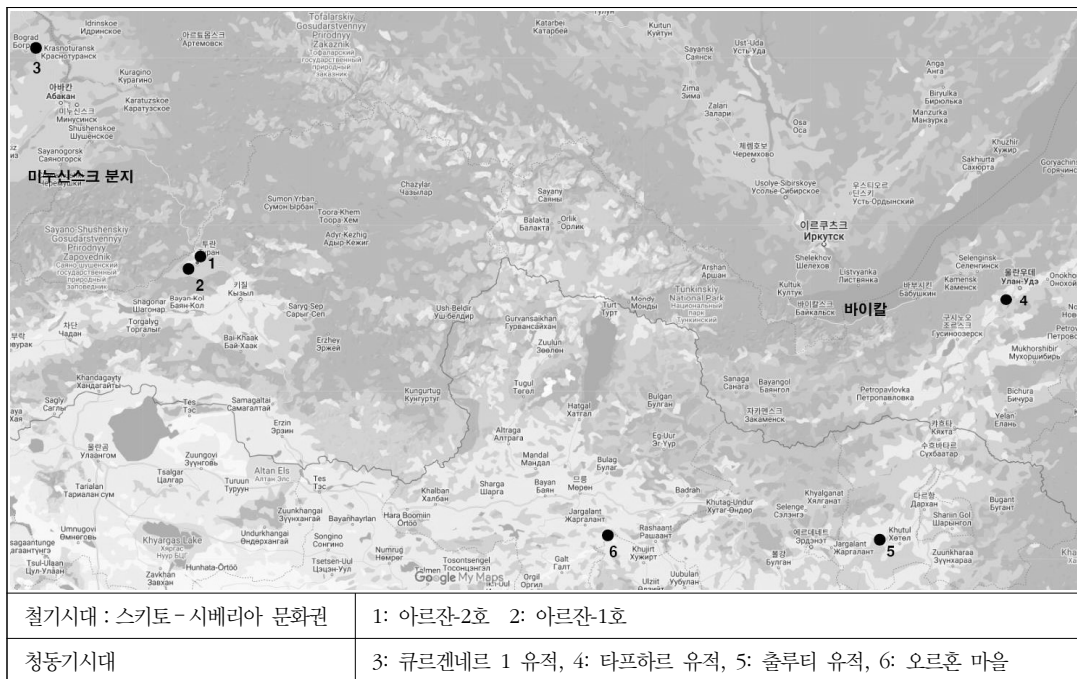
13) Волков В.В., Новгорова Э.А. Оленные камни Ушкийн-Увэра (Монголия). *Первобытная археология Сибири*. Л.: 1975, pp.76~79.

14) Артамонов М.И., *Сокровища саков*. М.: 1973, pp.223~230.

15)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Ibid*. 1994, pp.75~85.

16) Ts. 투르바트, 『사슴돌조사서문』, 『몽골과 그 주변 지역의 사슴돌 문화』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35~36쪽.

17) 중국의 내몽골과 신강성에서도 사슴돌이 발견되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지역과는 거리가 멀어서 다음기회에 살피도록 하겠다.



〈그림 3〉 아르잔-2호의 위치와 관련된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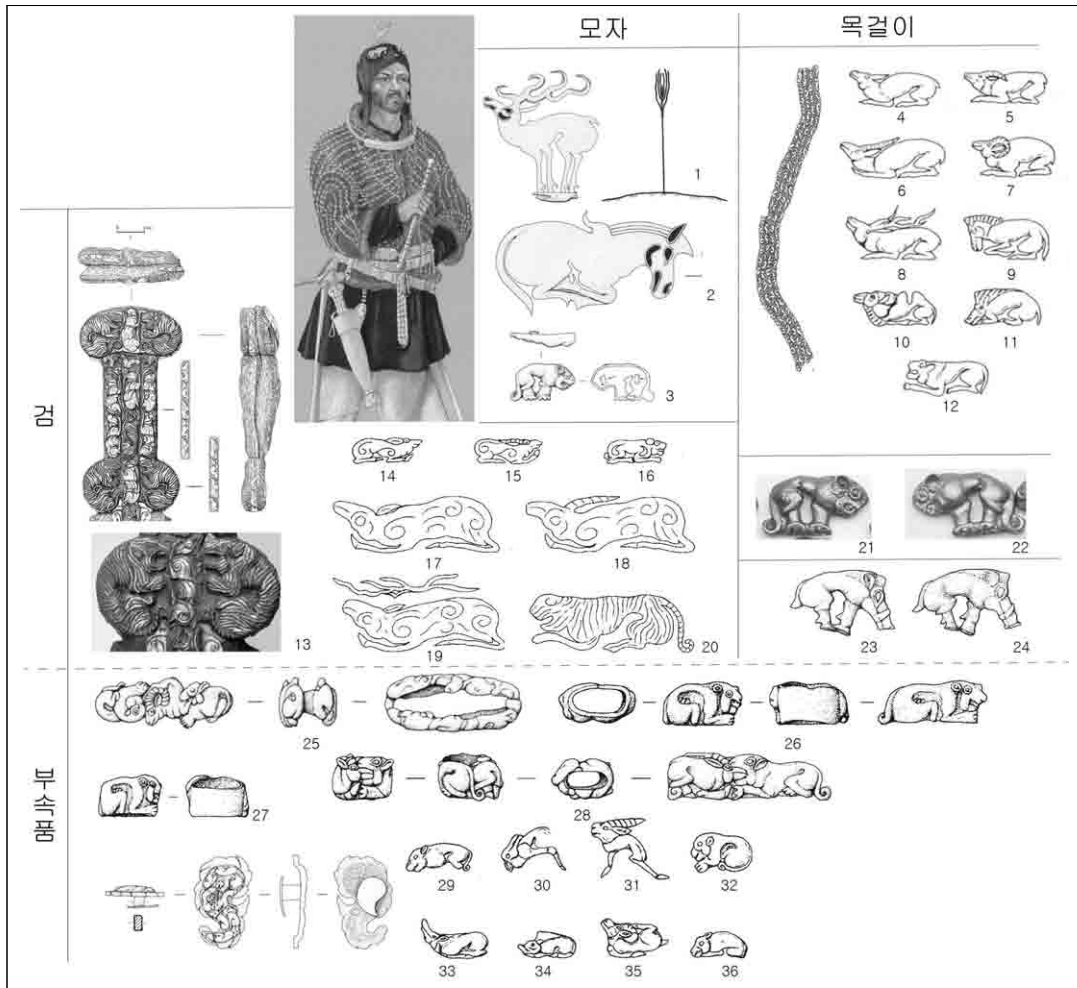
Ⅲ. 아르잔-2호 동물 문양장식

아르잔-1호와 9km 떨어진 아르잔-2호는 기원전 7세기 중엽의 유적¹⁸⁾으로 현재로써는 기원전 9세기(B.C. 885)¹⁹⁾로 아르잔-1호와 연대상으로 가장 가깝다.

아르잔-2호 의례복합체에서의 5호묘는 주인공의 무덤이다. 남녀는 모자, 옷, 목걸이 등 의복과 무기를 착용한 채 부장되었고, 동물 장식문양으로 장식되었다. 남성의 모자에는 사슴(그림 4-1), 말(그림 4-2), 호랑이(그림 4-3)로 된 황금장식이 부착되었다. 사슴은 등에 혹이 서 있고, 말은 다리를 배 쪽으로 접어 넣었고, 호랑이는 네 다리로 서 있는 자세이다. 이 중에서 사슴 문양장식은 모자의 중앙에 부착되었다. 남성은 무게 1kg이 넘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데, 동물로 장식되어 있다. 호랑이, 사슴, 말, 낙타, 멧돼지, 호랑이, 뿔의 종류가 다른 산양과 염소 각 2마리가 장식되어 있다(그림 4-4~12). 호랑이는 서 있는 자세이며, 나머지 동물

18) Чугунов К.В. Аржан-2: реконструкция этапов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погребально-помин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его хронологии., *РАЕ*. Вып. 1. СПб: «Юридическая книга». 2011, p.317.

19) Zaitseva GI, Vasiliev SS, Marsadolov LS, van der Plicht J, Sementsov AA, Dergachev VA, Lebedeva LM. A tree-ring and 14C chronology of the key Sayan-Altaian monuments. *Radiocarbon* 40(1), 1998, p.579.



〈그림 4〉 아르잔-2호 출토 5호묘 남성주인공 동물 문양장식(추구노프 외, 2017, 필자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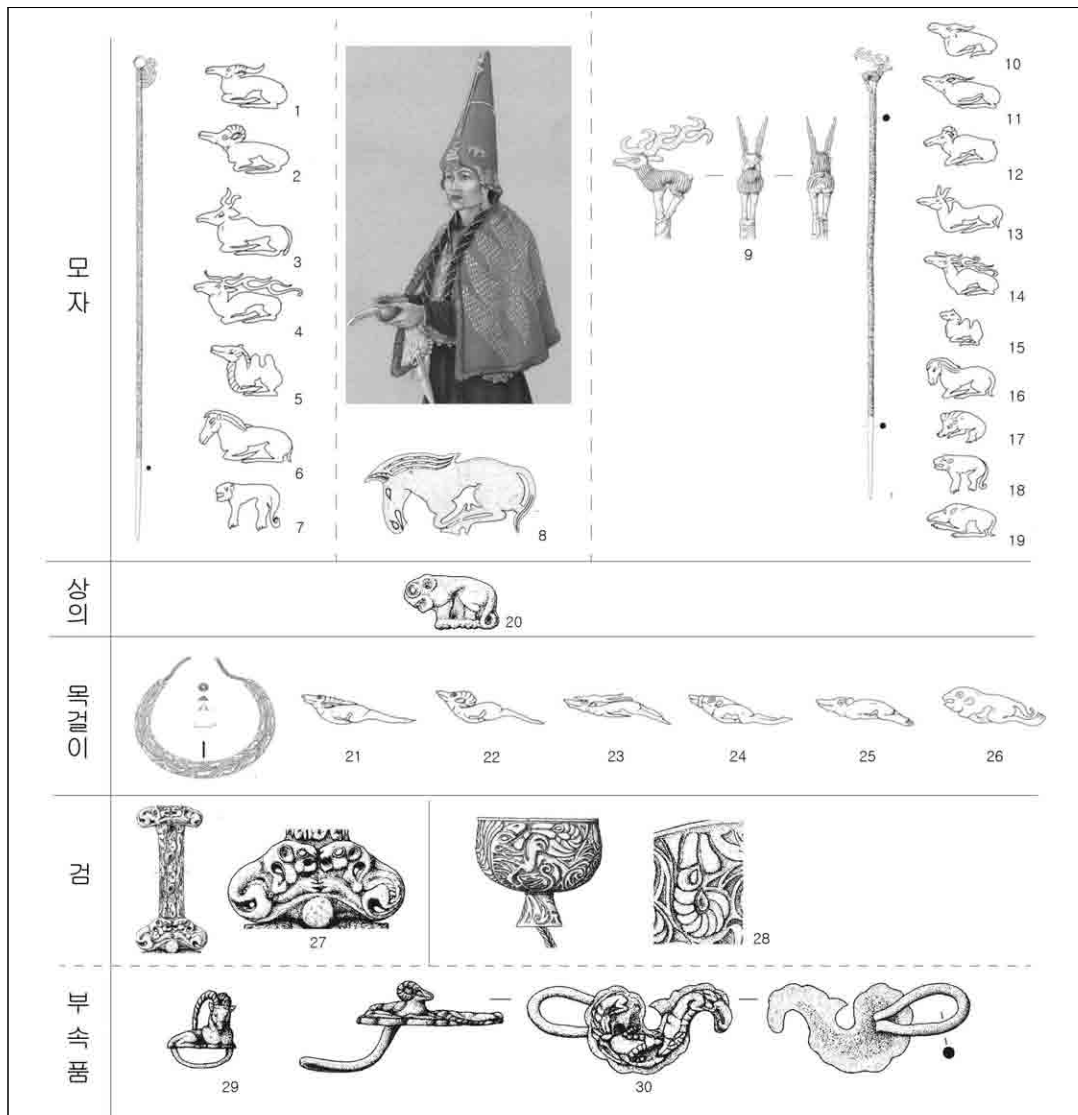
은 무릎을 굽히고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머리를 들고 있다.

남성 주인공의 상의는 잔존 흔적으로 보아서, 일종의 모피로 추정되는데, 호랑이 장식이 2,633점 달려 있다(그림 4-21, 22). 미세한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모자와 같은 자세이다. 호랑이는 모두 같은 자세이지만, 상의 오른쪽과 왼쪽에 따라 구분해서 달기 위해 머리의 방향은²⁰⁾ 다르다.

남성은 여성과 달리 활과 화살을 함께 넣는 고리트를 가지고 부장되었다. 멧돼지 문양장식(그림 4-23, 24)과 호랑이 문양장식이 붙어 있었다. 호랑이는 남성 상의에 달린 장식과 같고, 멧돼지²¹⁾도 자세는 동일하다.

20) 우측 1,121점, 좌측 1,512점이다.

21) 스키타이 문화권의 동물 문양은 맹금, 맹수, 우제류이다. 그런데 멧돼지는 굽이 있는 맹수이며, 잡식성이다. 멧돼지 장식이 고리트에 장식된 것은 남부 주인공의 의복 장식으로 사용된 문양과는 다른 의미일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이



〈그림 5〉 아르잔-2호 출토 5호묘 여성주인공 동물 문양장식(추구노프 외, 2017 인용)

화살촉은 의례용으로 금과 은으로 상감되었다. 대부분 소용돌이 모양인데, 1점은 산염소와 새가 감입되었다.²²⁾

남성의 오른쪽 허리에서 발견된 철검에도 얇은 황금띠를 감입해서 동물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검격(그림 4-13), 검파두식 뿐만 아니라 검과 연결되는 여러 고리(그림 4-25~28)에도 호랑이가 주요하게 장식되어 있

필요하다.

22) 추구노프 외, *Ibid.* 2017, 190~193쪽.

다. 검파두식과 검격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호랑이가 반쯤 몸을 감고 있는 형상이다. 'S'자형 장식(그림 4-29)에도 남성 목걸이와 같은 종류의 동물이 장식되어 있다. 고리에도 호랑이가 장식되었는데, 그중에서 납작한 고리에는 호랑이가 염소(류)를 먹고 있는 상태이다.

여성 주인공의 모자, 검, 목걸이에는 모두 동물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여성의 모자는 잔존한 흔적으로 보아서 고깔모자로 추정된다. 모자의 말 문양장식과 모자에 달았던 2개의 막대와 단독으로 말 장식이 출토되었다. 말(그림 5-8)은 다리를 접은 자세이고, 막대 중 1점에는 몸체에 낙타, 말, 사슴과 다양한 염소와 산양이 표현되어 있다(그림 5-1~7). 이 외에 사슴 문양장식(그림 5-9)이 끝에 달려 있는 막대의 몸체에는 사슴, 낙타, 호랑이, 야생염소와 산양(그림 5-10~19)이 있다.

여성의 목걸이에는 사슴, 호랑이와 산양과 염소가 나는 자세로 표현(그림 5-21~26)되어 있다. 옷에는 남성과 같은 형식의 호랑이(그림 5-20)가 장식되어 있다. 철검도 기본적으로 호랑이가 주요한 동물장식이다. 검파두식과 검격에는 다리를 뻗은 자세의 호랑이(그림 5-27), 검파에는 염소가 표현되었다. 검의 부속품인 고리와 'S'자형 장식(그림 5-30)에는 야생염소가 장식되었다.

아르잔-1호에서 출토된 사슴, 호랑이, 야생염소(아이벙스), 말은 모두 아르잔-2호에서도 사용되었다. 사슴들의 문양인 서 있는 사슴(그림 2-3)은 남녀 모두 모자의 가장 높은 곳에 장식되었다. 하지만 아르잔-1호에서 볼 수 있었던 서 있는 사슴은 모자 장식으로만 사용되었다. 특히 등에 흑까지 그대로 표현된 것은 남성의 모자 장식(그림 4-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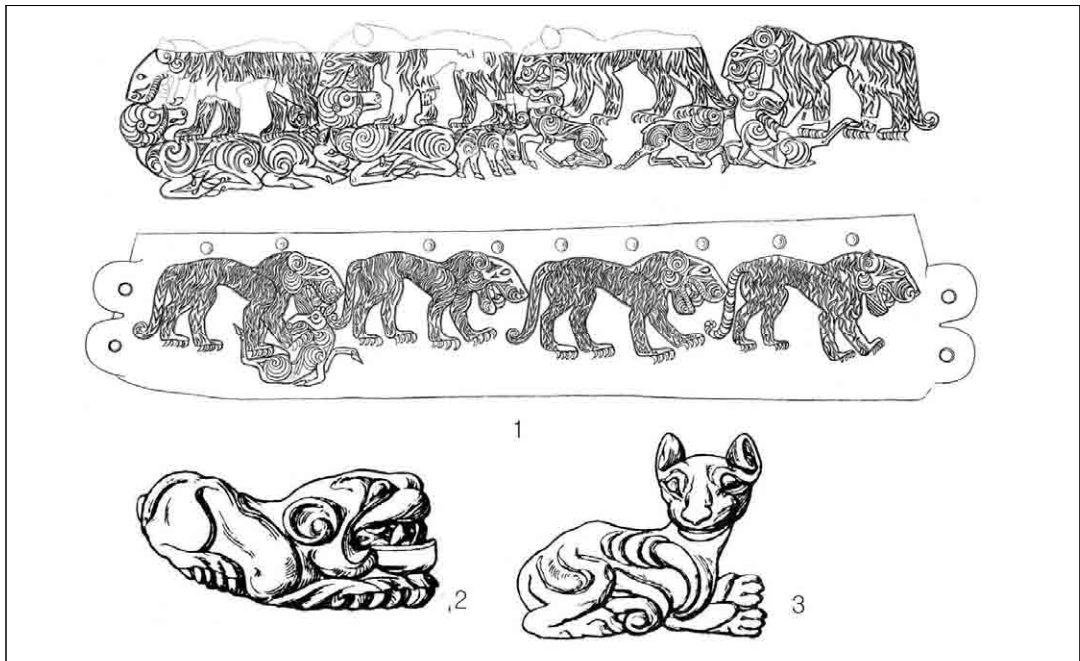
몸을 말고 있는 아르잔-1호의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과 가장 유사한 호랑이 문양장식은 남성의 검파두식과 검격(그림 4-13)이다. 이 외에 모피 장식으로 사용된 호랑이(그림 4-21, 22)는 서 있거나,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뻗은 자세이다.

아르잔-1호의 말은 석제이고, 머리 부분만 출토되어 전체모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말을 단독 동물장식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르잔-2호의 말 문양장식도 사슴과 호랑이 문양장식과 마찬가지로 아르잔-1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³⁾

아르잔-1호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르잔-2호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동물 문양 및 자세도 있다. 앉거나 선 호랑이는 기원전 6세기 알타이 바샤다르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바샤다르 유적의 통나무에 새겨진 호랑이는 서 있는 자세로 열을 지어서 표현되었다. 또 이 유적의 목제 굴레장식에는 앉은 호랑이 장식이 출토되었다(그림 6-3).²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7세기 아르잔-2호에서 서 있거나 앉은 자세의 호랑이도 관찰되어서, 바샤다르 유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이 외에도 야생염소는 모자 장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여성 모자 장식인 막대기에서 확인된다. 또한 남녀 목걸이에서도 있었다.

24) Руденко С.И.,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1960, p.360(루덴코, 『스키타이 문화시기의 중부알타이 산맥의 주민문화』, 1960).



〈그림 6〉 알타이 바샤다르 유적의 통나무관과 굴레장식(루덴코, 1960, 필자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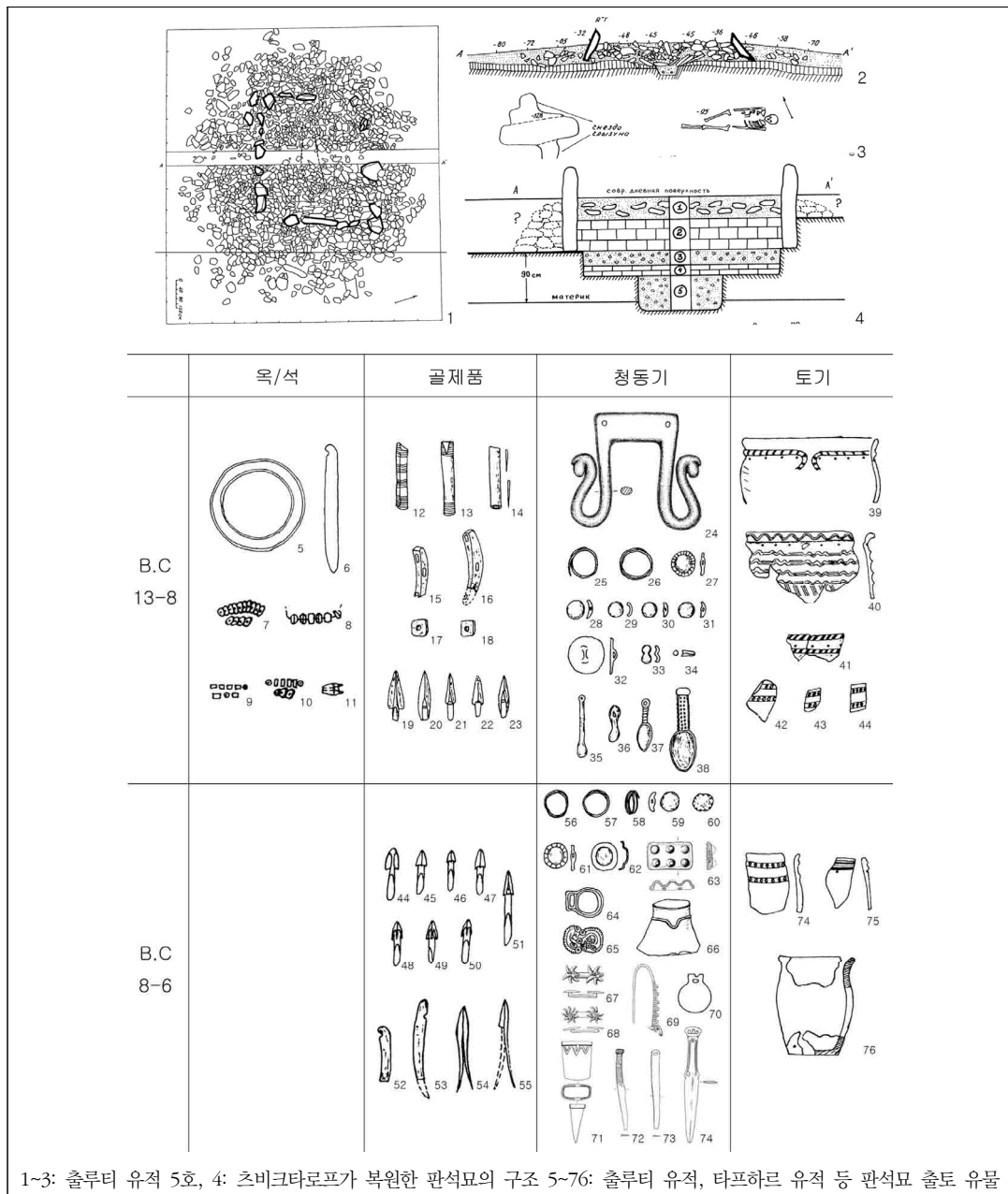
그렇다면 200년 이상 사용된 서 있는 사슴 문양장식, 몸을 말고 있는 호랑이 문양장식의 동물 문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시베리아 청동기시대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8~7세기 사이에 이미 사슴돌에서 동물 문양을 사용했다.²⁵⁾

IV. 청동기시대 사슴돌의 사슴 문양장식

사슴돌은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스키타이 문화권의 서부지역인 코카서스 부근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8~7세기까지 존재했다.²⁶⁾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지역은 자바이칼부터 몽골이다. 그중에서도 알타이와 접하고 있는 몽골 서부지역부터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알타이까지 이어진다.²⁷⁾ 또 수량은 적지만 카자흐스탄 및 코카서스 북부지역까지도 확인된다.²⁸⁾

25) Новгорова Э.А., *Древняя Монголия*(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хронологи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М.: ГРВЛ, 1989, pp.179~183; Волков В.В., Новгорова Э.А., *op. cit.*, p.75; 세르, *Ibid.*, 1980, p.342; 페레보드치코바, *Ibid.*, 1994, pp.73~85.

26) Членова Н.Л., *Оленные камни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на примере оленных камней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Новосибирск, 1984, pp.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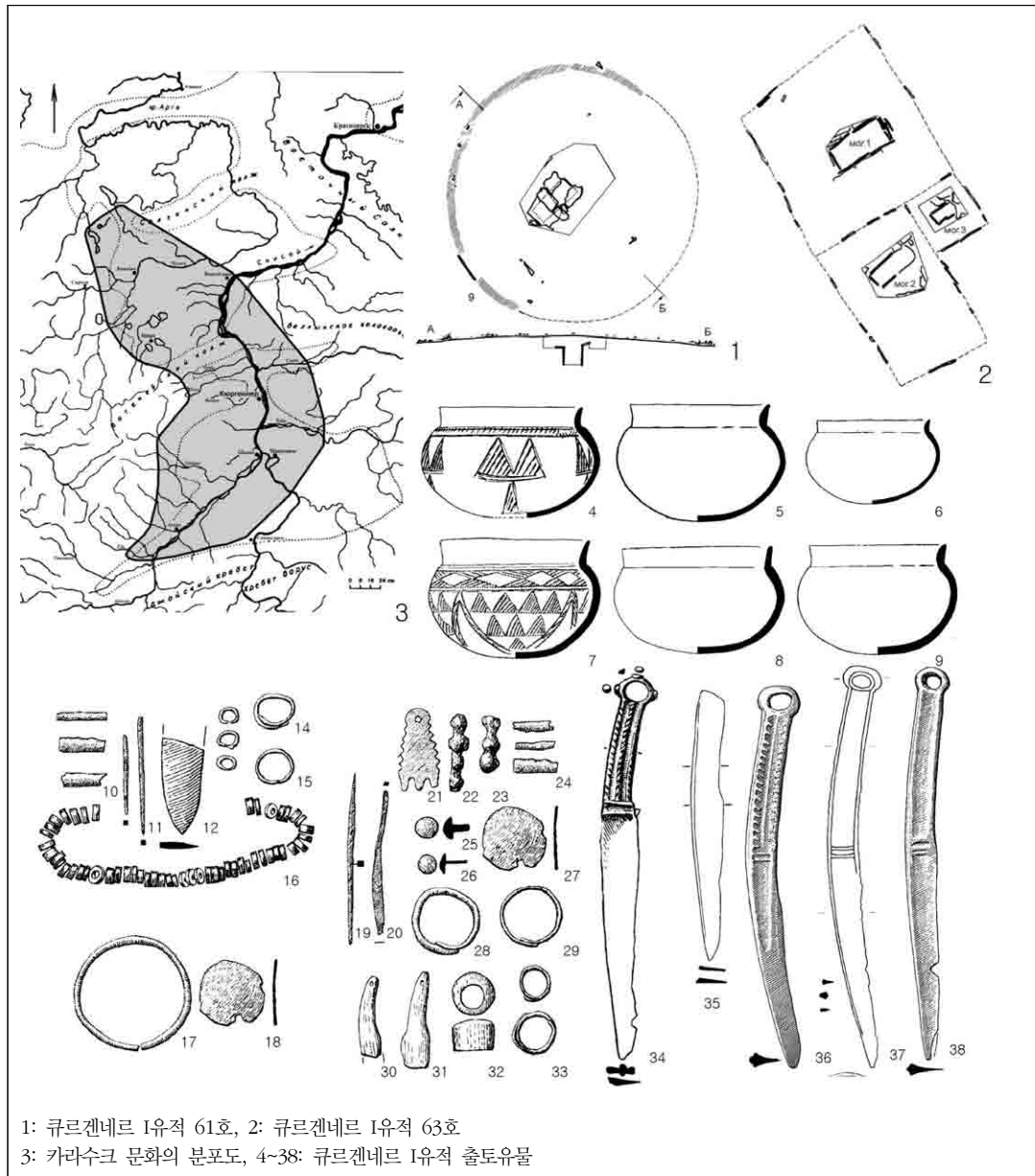


〈그림 7〉 판석묘 문화의 무덤과 출토유물(츠비크타로프, 1980, 필자 재편집)

27)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p.25~29.

28) Ковалёв А.А.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оленных камней западного региона, *Археология, палеоэкология и палеодемография Евразии*. М.: «ГЕОС», 2000, pp.138~180.

특히 시베리아, 몽골에서 확인되는 사슴돌은 미누신스크 부근에서는 기원전 13~9세기 카라수크 문화, 자바이칼부터 몽골에서는 판석묘 문화 및 히르기수르와 함께 나타난다.²⁹⁾ 카라수크 문화와 판석묘 문화의 출



〈그림 8〉 카라수크 문화의 무덤과 출토유물(그라즈노프 외 2010, 필자 재편집)

29) Новгородова Э.А., *Ibid.* 1989, pp.203~235;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p.41~42.

토유물 중 청동검과 올자형 청동기 등은 사슴들의 문양에서 확인되고, 사슴들의 연대를 알 수 있는 판단근거³⁰⁾가 되었다. 또 히르기수르는 사슴들이 하나의 요소이다.

판석묘 문화는 자바이칼부터 몽골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 히르기수르는 주로 자바이칼 일부 및 몽골의 헝가이 산맥과 헨터 산맥, 몽골알타이 산악지대를 중심(그림 7)로 나타난다.³¹⁾

카라수크 문화(그림 8)와 판석묘 문화(그림 7)는 매장주체부가 석관묘인데, 구조와 부장품에는 차이가 있다. 큐르겐네르(Кургеннер, Kurgenner) I 유적의 석관묘(그림 8-1, 2)는 토광을 파고 다듬은 판돌 혹은 납작한 판석으로 만들었고, 그 둘레를 둥글게 돌로 쌓았다(그라즈노프 외 2010). 판석묘 문화의 무덤(그림 7)은 2단으로 토광을 파고, 1차와 2차에 걸쳐서 판석으로 덮는다. 2차로 덮은 후 토광 어깨선을 따라서 수직으로 판석을 세우고, 그 내부 혹은 외부까지 다듬지 않은 납작한 돌을 채운다. 수직으로 세워진 판석까지는 채우지 않는다(그림 7-4).

히르기수르(그림 9)는 외관상으로는 호석 혹은 집석이 있는 무덤으로 보이지만 매장주체부가 없어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브고르도바와 투르바트는 일종의 의례장소로 보았다.³²⁾ 오르혼 히르기수르(그림 9)에는 6개의 집석유구가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 그 중에서 사슴들이 있는 곳은 가장 남쪽의 3 지점(그림 9-A~C)인데, 사슴들이 2~3개씩 설치되었다. 현재 오르혼 히르기수르는 남아 있지 않고, 사슴들(그림 9-1~3, 그림 10-2)만 오르혼 마을로 옮겨서 보존³³⁾ 중이다.

카라수크 문화와 판석묘 문화의 출토유물도 차이가 있다. 동물 머리(그림 10-8, 9)로 장식된 곡인의 청동 단검과 칼이 카라수크 문화의 주요한 유물이다.³⁴⁾ 청동검과 청동칼은 병부장식, 곡인의 정도, 검격에 따라서 시간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³⁵⁾ 또 청동단추, 치레걸이(귀걸이, 팔찌), 올자형청동기(그림 10-13) 등도 있다. 토기는 바닥이 둥근 단경호인데, 구연부가 짧게 외반하며, 무문양 혹은 삼각집선, 점열문 등으로 시문되었다.

판석묘 문화에서는 청동단검(그림 7-74)은 늦은 시기에는 몇 점 있으나, 문화적 특징으로 볼 만큼 존재하지 않는다. 또 검파가 동물 문양으로 장식되지 않았고, 검격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칼의 굽은 형식도 없다. 청동도는 손잡이까지 주조된 것(그림 7-72)도 있으나 매우 간략하며, 카라수크 문화에 있는 굽은 형식이 없다.

30) Новгорода Э.А., *Ibid.* 1989, pp.185~191;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p.41~42.

31) Цыбиктаров А.Д., *Культура плиточных могил Монголии и Забайкалья*, Улан-Удэ: Изд-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1998, pp.23~26.

32) Новгорода Э.А., *Ibid.* 1989, pp.203~205;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p.41~42.

33) 2023년 7월 직접 오르혼 마을을 방문해서 오르혼 사슴들을 확인했다. 노브고르도바(1989)가 보고한 사슴들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의례복합체가 그대로 보존되지는 못했다. 그림 10-2, 3은 필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다. 사슴들은 연구자가 발견할 당시에 이미 옮겨진 경우가 많으나, 노브고르도바와 볼코프가 조사할 당시에 카라수크문화와 히르기수르문화에서는 그나마 의례복합체로 확인되었다. 현재는 보존을 위해서 발견 당시의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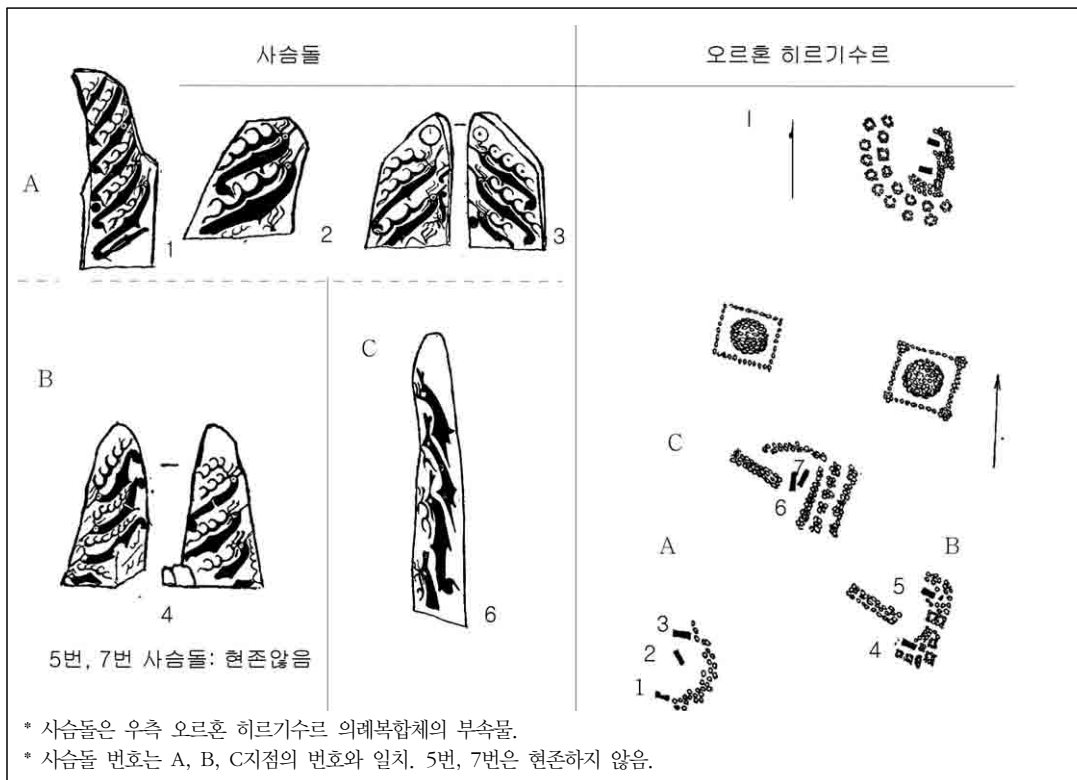
34) Киселёв С.В., *Древняя история Южной Сибири*, 2-е изд. М.: 1951, pp.116~122.

Новгорода Э.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расукская проблема. М.: ГРВЛ, 1970, pp.91~93; Членова Н.Л. *Карасукские кинжалы*, М., 1976, pp.42~45.

35) Новгорода Э.А., *Ibid.* 1970, pp.65~124; Членова Н.Л.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ранняя история племён тагарской культуры. М.: 1967, p.54.

청동단추(그림 8-28~31, 59, 60), 연주형 장식(그림 8-33), 고리(그림 8-25, 26, 56, 57) 등은 카라수크 문화에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의 동물 문양장식(그림 8-65), 숟가락 모양의 치레걸이(그림 8-37, 38), 을 자형 청동기 모방품(그림 8-24), 삼릉형 골촉(그림 8-19~23, 44~51), 골제 재갈멈치(그림 8-15, 16)는 판석묘 문화에서만 보인다.

사슴들은 대부분 사슴이 주요한 문양이지만 사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표현 대신 상징, 무기 등(Ⅲ 유형, 유라시아유형)이 시문된다. 이 외에는 문양이 있다. 사슴 문양은 가지가 있는 뿔, 새 부리 모양의 입, 나는 형상을 한 사슴과 사슴 등에 흑이 있으며, 서 있는 자세를 한 사슴 문양이 있다. 전자는 주로 입석 상단을 빼곡히 채우고, 하단에는 허리띠 및 무기가 그려진 유형(Ⅰ 유형)이다. 후자는 사슴이 빼곡하게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동물 문양이 함께 그려지며, 하단에는 허리띠 아래로 무기가 있다(Ⅱ 유형). 사슴 문양이 없는 사슴돌에도 무기는 장식되지만, 무기 문양의 차이는 있다. 사슴돌이라 명명되었으나, 전체 지역에서 공동의 문양은 무기이다. 무기에는 주로 청동검과 칼, 화살통, 방패 등이 그려져 있으며, 여러 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하다.³⁶⁾



〈그림 9〉 오르혼 히르기수르와 사슴돌(볼코프, 2002 인용, 필자 편집)

36) Новгородова Э.А., *Ibid.* 1989, pp.192~198;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p.36~37.

카라수크 문화 청동검은 사슴들의 편년의 근거가 되었다. 청동검(그림 10-7~9)이 I 유형 사슴돌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르혼 사슴돌에는 동물 머리로 장식된 카라수크 문화의 특징적인 단검(그림 10-6)이 발견되었다. 카라수크 문화의 청동검을 정리한 노브고르도바는 사슴들의 연대를 기원전 13~9세기로 적용했다.³⁷⁾ 큐르기네르-1 유적 28호 쿠르간 출토 청동칼과 청동장식(그림 10-7)이 붙은 가죽검집이 사슴돌에 그대로 표현되었다.³⁸⁾ 이 외에도 ‘兀’자형 청동기(그림 10-13)라고 불리는 카라수크 문화의 특징적인 유물도 I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II유형은 I 유형 사슴 문양과는 달리 다리를 세운 사슴 문양이다. 사슴 외에 말, 호랑이 등도 확인된다. 하단에 무기가 시문되는데, I 유형에는 있던 방패가 없어진다. II유형의 사슴돌 연대는 노브고르도바에 의하면 기원전 7세기 혹은 이보다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아르잔-1호의 사슴돌과 코카서스 북부의 사슴돌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출레노바의 코카서스 북쪽 사슴돌이 이 시기로 확인된다는 연구³⁹⁾를 참고⁴⁰⁾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추정으로 머물렀으나 III장 서두에서 밝혔듯이 현재 자료로는 아르잔-1호가 존재한 B.C. 9세기(B.C. 889)까지도 존재했고, 기원전 7세기에는 이미 아르잔-2호도 존재해서, 기원전 7세기보다 이른 기원전 9세기까지도 소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III유형(그림 10-17)은 사슴돌이 많이 분포하는 몽골의 서부⁴¹⁾에서도 있지만 카자흐스탄, 카프카스, 불가리아까지도 널리 분포한다.⁴²⁾ 전신의 동물 문양은 없고, 말 머리 4개가 ‘十’자형으로 붙은 것도 존재한다. 가장 상단에는 세 줄의 사선이 있고, 중단에는 청동무기, 활과 화살통을 함께 넣은 문양 등이 빼곡하지 않게 시문되었다. 하단에는 허리띠와 무기가 그려지나, 방패와 거울은 표현되지 않으며, I 유형에서 보이는 동물 장식이 달린 청동단검도 없다. 사비노프⁴³⁾는 카프카스 북부의 석상들을 일종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면서 이 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인 코반 문화 후기와 비교해서, 목걸이, 귀걸이, 무기세트, 두줄의 띠 등을 근거로 기원전 7세기로 편년했는데, 이미 노브고르도바와 투르바트도 이 연대에 동의했다.⁴⁴⁾

사슴들의 편년은 동물 문양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및 코카서스 지역 모두 그 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인 카라수크 문화와 판석묘 문화, 코반 문화 등 실제 존재한 무기와 문양의 비교로 이루어졌다.⁴⁵⁾

37) Новгорова Э.А., *Ibid.* 1989, pp.188~189;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p.37~38.

38) Новгорова Э.А., *Ibid.* 1989, pp.190;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p.40~41.

39) Савинов Д.Г., Членова Н.Л. Западные предел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ленных камней и вопросы их культурно-этн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графия Монголии*. Новосибирск: 1978, pp.72~94.

40) Новгорова Э.А., *Ibid.* 1989, p.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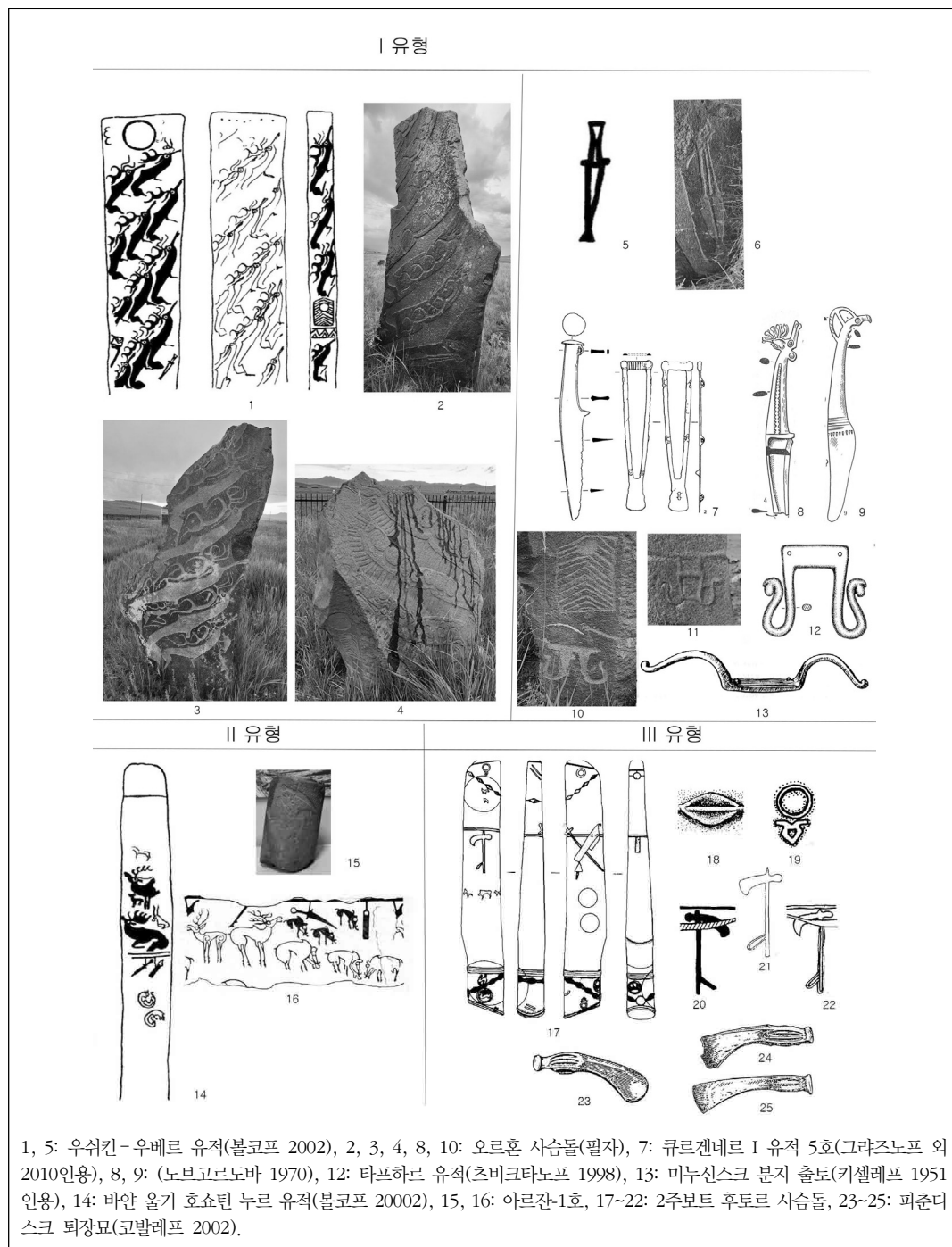
41)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p.38~39.

42) Савинов Д.Г., Членова Н.Л. *op. cit.* 1978, p.82.

43) Савинов Д.Г.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х камней-обелисков.,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Евразии и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М.: 1977, pp.125~126.

44) Новгорова Э.А., *Ibid.* 1989, pp.179~180;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40.

45) Савинов Д.Г. *op. cit.* 1977, pp.123~125, 사비노프의 연구는 1994년에 총망라되어 저서로 나왔는데, 동일한 입장이다. Савинов Д.Г. Оленные камни в культуре кочевников Евразии. СПб: СПбГУ. 1994; Новгорова Э.А., *Ibid.* 1989, p.181.



〈그림 10〉 노보고르도바가 분류한 I~III 유형의 사슴돌

그렇지만 사슴돌 단독이 아닌 실제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우는 히르기수르라고 불리는 의례복합체의 구조로써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몽골에서는 히르기수르-사슴돌 문화⁴⁶⁾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카라수크 문화와 판석묘 문화는 분포범위, 무덤의 구조, 출토 유물도 차이가 있으나, 사슴돌에 각 지역의 특징적인 유물이 그대로 표현되며, 사슴돌이 히르기수르와 복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르기수르가 없는 지역인 코카서스, 불가리아 등지에서도 사슴돌 Ⅲ유형이 확인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기와 비교분석해야 할 것인데, 본 고의 논점과는 달라서 여기에서는 제외하지만, 앞으로 연구할 것이다.

Ⅱ유형의 사슴돌에는 선 자세의 사슴이 그려져 있고, 아르잔-1호도 이 유형에 속한다. 또한 몸을 두른 호랑이 문양도 Ⅱ유형의 바얀 울기 호쇼틴 누르 유적(그림 10-14)에서 확인된다.

I 유형 사슴에서 Ⅱ유형으로 사슴 문양의 변화는 토기의 형식처럼 점차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슴돌이라는 한정된 구조물 안에서 동물 문양의 변화와 무기 문양으로 보아서 I 유형 하이브리드 사슴 문양은 Ⅱ유형의 서 있는 사슴으로 변화되었고, 실제와 가깝다. 서 있는 사슴 문양으로 변화하면서 호랑이, 말이 등장하는 것은 동물송배의 대상이 변화 혹은 다양화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I 유형은 Ⅱ유형, Ⅲ유형으로 이어진다. 청동기시대 사슴 문양의 급격한 변화는 송배대상의 범위나 의미 변화로도 볼 수 있다.

V. 맺음말

기원전 7세기 아르잔-2호 남녀 주인공 모자의 상단에 장식된 선 자세의 사슴은 이 유적보다 이른 기원전 9세기 아르잔-1호의 사슴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청동기시대 사슴돌에도 확인되었다. 모자 장식으로 사용된 말 문양장식, 남성의 철검장식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도 아르잔-1호에 있는 요소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 자세의 사슴은 남녀 주인공의 모자 상단, 말은 모자 하단에 장식되었고,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은 검파두식과 검격을 장식했다. 이 외에 아르잔-2호에서 서 있는 호랑이 형식은 남녀 주인공의 상의, 무릎을 앞으로 펴고 앉아 있는 형식은 주인공 여성의 검 장식으로 사용되었는데, 아르잔-1호에서는 없었고, 이 유적부터 확인되었다.

간두령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아르잔-1호의 야생염소 문양장식은 아르잔-2호에서 종류가 다양해지며 주로 목걸이, 모자의 막대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사슴 문양장식이나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과 달리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사슴과 말 문양장식은 가장 눈에 잘 띄며, 자신을 나타내는 곳에 달려서 주인공 남녀의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났다.

아르잔-1호의 사슴돌은 노보고르도바가 분류한 사슴돌 Ⅱ유형에 속한다. Ⅱ유형 사슴돌은 청동기시대 기

46) Ts. 투르바트, 앞의 글, 2020, p.40.

원전 13~9세기 I유형 사슴돌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추상적인 청동기시대 사슴 문양이 선 자세로 변화되면서, 호랑이, 말 등도 나타나며 동물 문양이 다양해진다. 특히 남성 검의 장식인 맹수는 고리형으로, 아르잔-1호의 고리형 맹수 문양장식의 특징도 II유형 사슴돌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초기 스키타이 문화의 가장 이른 아르잔-1호의 동물장식이 대부분 청동기시대 사슴돌에서 확인되었다.

아르잔-2호의 무덤구조는 한 봉분 아래에 목관묘와 석관묘 26기가 함께 축조된 것이고, 기원전 6세기경부터 등장하는 알타이 파지리크 문화로 연결된다고 보았다.⁴⁷⁾ 아르잔-1호에 매장주체부가 지상에 존재하며 통나무 6,000개 이상을 쌓아 올려서 방사상으로 거칠게 무덤을 축조한 방법⁴⁸⁾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컸다. 하지만 아르잔-2호 주인공 남녀의 사슴 모자 장식은 아르잔-1호의 전통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물 문양의 의미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청동기시대 및 스키타이 문화권의 사슴 문양 의미는 사슴 문양을 청동기시대부터 스키타이 문화, 흉노의 동물 문양 등 기원전 일천년기 동물 문양까지 망라한 후에 추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슴돌 III유형에는 사슴 문양이 없고, 무기가 중요한 문화이다. 본 고의 논점과는 맥락이 달라서 다루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추후의 논문에서 밝히겠다.

47) 김재운, 앞의 글, 2021b, 143쪽.

48) 강인욱·조소은, 「기원전 9~7세기 초기 스키타-시베리아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권의 대형무덤 비교연구」, 『인문학연구』, 28, 2015, 12~17쪽.

〈참고문헌〉

- 김재윤,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라와 여신상: 교과서 밖의 역사』, 진인진, 2021a.
- 강인욱·조소은, 「기원전 9~7세기 초기 스키토-시베리아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권의 대형무덤 비교연구」, 『인문학연구』, 28, 2015.
- 김재윤, 「『스키타이 차르 무덤, 아르잔-2호』의 최신성과 및 학사적 의미」, 『고고광장』, 28, 2021b.
- 김재윤, 「『표트르 1세의 시베리아 컬렉션』 수집지에 대한 검토-유라시아 스키타이 문화를 중심으로-」, 『東洋學』, 87, 2022a.
- 김재윤,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 동물문양장식의 기원에 대한 연구사 검토 및 연구 전망」, 『러시아연구』, 32-1, 2022b.
- 김재윤, 「환동해문화권 북부지역의 쪽구들 유라시아 확산 현상-청천강 유역, 자바이칼의 흥노, 우리나라 중부지역-」, 『고고학』, 21-2, 2022c.
- Ts. 투르바트, 「사슴돌조사서문」, 『몽골과 그 주변 지역의 사슴돌 문화』 I,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 Артамонов М.И. Сокровища скифских курганов в собр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рмитажа, Прага — Л.: «Артия», «Советский художник». 1966(아르타모노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한 스키타이 쿠르간의 보물』, 1966).
- Артамонов М.И., Сокровища саков. М.: 1973(아르타모노프, 『사카족의 보물』, 1973).
- Волков В.В., Новгородова Э.А. Оленные камни Ушкийн-Увэра (Монголия). Первобытная археология Сибири. Л.: 1975(볼코프, 노브고르도바, 「몽골, 우쉬킨-우베르 사슴돌」, 『시베리아의 선사시대』).
- Волков В.В. Оленные камни Монголии. М.: Научный мир. 2002(볼코프, 『몽골의 사슴돌』, 2002).
- Грязнов М.П. Аржан,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ранне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Л.: 1980(그라즈노프, 『아르잔. 초기 스키타이 시기의 차르쿠르간』, 1980).
- Грязнов М.П., Комарова М.Н., Лазаретов И.П., Поляков А.В., Пшеницына М.Н. 2010 : Могильник Кюргеннер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Среднего Енисея. СПб: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2010. 200 с. (Archaeologica Petropolitana; Труды ИИМК РАН. Т. XXXI)(그라즈노프 외, 『예니세이 중류 청동기시대 후기 큐르겐네르 무덤』, 2010).
- Руденко С.И.,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1960. 360(루덴코 1960, 『스키타이 문화시기의 중부알타이 산맥의 주민문화』, 1960).
- Ковалёв А.А.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оленных камней западного региона., *Археология, палеоэкология и палеодемография Евразии*. М.: «ГЕОС». 2000. С. pp.138~180(코발레프, 「서부지역 사슴돌 기원」, 『유라시아 고고학, 고환경과 고인구학』, 2000).

- Киселёв С.В. Древняя история Южной Сибири. 2-е изд. М.: 1951(키셀레프, 『남부시베리아 고대사』, 1951).
- Новгородова Э.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расукская проблема. М.: ГРВЛ.1970(노브고르도나, 『중앙아시아와 카라수크 문제』).
- Новгородова Э.А. Древняя Монголия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хронологи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М.: ГРВЛ. 1989(노브고르도바, 『몽골의 고대(연대와 민족문화사를 중심으로)』, 1989).
- Цыбиктаров А.Д. Культура плиточных могил Монголии и Забайкалья. Улан-Удэ: Изд-во Бурят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1998(츠비크타로프, 『몽골과 서부바이칼의 판석묘 문화』, 1998).
- Переводчикова Е.В. Язык звериных образов. Очерки искусства евразийских степей скифской эпохи. М.: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4(페레보드치코바, 『언어로서의 동물장식속성. 스키타이 시기 유라시아 동물장식』, 1994).
- Савинов Д.Г. Оленные камни в культуре кочевников Евразии. СПб: СПбГУ. 1994, 208 с(사비노프, 『유라시아의 유목문화에서 사슴돌』, 1994).
- Членова Н.Л.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ранняя история племён тагарской культуры. М.: 1967(츄레노바, 『타가르 문화의 기원과 전개』, 1967).
- Членова Н.Л. Карасукские кинжалы. М, 1976(츄레노바, 『카라수크 단검』, 1976).
- Членова Н.Л. Оленные камни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на примере оленных камней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Новосибирск: 1984(츄레노바, 『역사적 사료로서의 사슴돌(북부카파카스의 사슴돌)』).
- Чугунов К.В. Аржан-2 реконструкция этапов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погребально-помин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его хронологии., РАЕ. Вып. 1. СПб: «Юридическая книга». 2011(추구노프, 「아르잔-2 의례과정 복원과 편년문제검토」, 2011).
- Чугунов К.В., Парцингер Г., Наглер А.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с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Аржан-2 в Туве. Новосибирск: ИАЭТ СО РАН. 2017. 500 с(추구노프 외, 『아르잔-2호 스키타이시기의 차르 쿠르간』).
- Шер Я.А. Петроглифы Средне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 1980(셰르, 『아시아 중부와 북부의 암각화』).
- Королькова, Е. Ф. Звериный стиль Евразии. Искусство племён Нижнего Поволжья и Южного Приуралья в скифскую эпоху (VII-IV вв. до н.э.), *Проблемы стиля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СПб: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코롤코바, 「스키타이 시기의 불가하류와 우랄남부의 민족예술. 유라시아동물양식」, 『민족문화와 양식의 문제』).
- Савинов Д.Г. О культур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х камней-обелисков.,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Евразии и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М.: 1977(사비노프, 「코카서스 북부 석제 오벨리스크의 문화적 특징」,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 고고학연구』).
- Савинов Д.Г., Членова Н.Л. Западные предел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ленных камней и вопросы их

культурно-этническ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Археология и этнография Монголии. Новосибирск: 1978(사비노프, 출레노바, 「사슴들의 서부 분포범위와 문화적 특징」, 『몽골의 고고학과 민족지학』, 1978).

Zaitseva GI, Vasiliev SS, Marsadolov LS, van der PlichtJ, Sementsov AA, Dergachev VA, Lebedeva LM. 1998. A tree-ring and ¹⁴C chronology of the key. Sayan-Altai monuments. Radiocarbon 40(1): 571-80.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0일에 투고되어,
2023년 12월 1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4년 1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4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Formative Research of the Deer Pattern on the Headwear of the Siberian Arzhan-2 Tzar

Kim, Jaeyoun*

From Arzhan-1, the eastern part of the Scytho-Siberian culture in the 9th century B.C., animal decorations such as deer, horses, and goats were excavated in addition to the ring-shaped beast ornaments. However, the main subject of interest was the beast. It is because it is the artifact excavated from the earliest ruins until today and was excavated after not being identified in Siberia.

Thirty years after the excavation of Arzhan-1, Arzhan-2, from around the 7th century B.C., was investigated. This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structure of later Altai Pazyryk culture and various golden artifacts were already used during this period.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ombs of Arzhan-1 and Arzhan-2, which were the closest in time, such as that the burial subject was above and below ground. Yet, this paper analyzed the animal decorations of tomb No.5, where the male and female of Arzhan-2 were buried, and found that the tradition of Arzhan-1 was forgotten. The hat of the people found in the tomb of Arzhan-2 was decorated with deer and horse patterns in a standing posture. Also, the ring-shaped beast ornament was decorated on the male sword's pommel fitting and handle point.

In particular, the standing deer decoration is located at the very top of the hat. This can be seen as one of the symbolic elements of Arzhan-2. It can be considered a traditional pattern if this has been continued from Arzhan-1, along with the ring-shaped beast ornament.

In addition, the standing deer, ring-shaped beast, and horse decorations of Arzhan-1 were found in Siberia and Mongolia's Bronze Age deer stone culture. It is the deer pattern classified as Type II deer stones from Novgorodova's classification. The realistic standing deer and ring-shaped beast patterns from Type II evolved from the abstract deer patterns of Type I from the 13 century B.C. In other words, most of the earliest animal decorations of Arzhan-1 from the early Scythian culture were found in the Bronze Age deer stone.

[Keywords] Scytho-Siberian culture, standing deer decoration, ring-shaped beast ornament, Bronze Age, deer stones

* Yeungnam University